

세즈윅이 벌랜트를 다시 읽는다면?: 반복, 형식, 시나리오의 가능성과 ‘느린’ 읽기

김희원

1. 들어가며: 반복과 변화의 전망에 관하여

우리가 이미 있어왔던 규범, 관습, 언어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상상할 수 있을까?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도덕의 계보학』(*On the Genealogy of Morals*)에서 “사물’, 기관, 풍습의 전체 역사는 어느 때고 새로운 해석들과 조정들의 연속된 기호 사슬 일 수 있는 바, 그것들의 원인들은 서로 관련될 필요가 없되 역으로 어떤 경우에는 순전히 우연한 방식으로 뒤를 잇거나 교체된다”(the entire history of a ‘thing,’ an organ, a custom can be a continuous sign-chain of ever new interpretations and adaptations whose causes do not even have to be related to one another but, on the contrary, in some cases succeed and alternate with one another in a purely chance fashion; Butler, *Bodies That Matter* 170 재인용)는 통찰을 제공한다. 니체의 기호 사슬(sign-chain)이란 개념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의미화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함축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역사적 현실을 놓고도 반복과 변화의 이야기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우연성이 추진력을 얻기에 ‘사슬’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운 젠더와 성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축적된 과거의 구속력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집어 삼켜지지 않는 현재를 말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 이론과 퀴어 이론에서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억압적 현실과 그 구성의 역사를 폭로하는 일에 몰두해왔다. 어느 정도

는 우리가 그 현실을 알고 의식하게 된다면 모종의 변혁이 가능해지리라는 믿음에서 그러한 것이다.¹⁾ 하지만 이브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은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1997)에서 의심에 찬 편집증적 읽기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확인할 뿐 실질적으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다. 오히려 세즈윅은 우울한 현실 인식을 딛고, 또 모종의 위협을 감수해서라도, 현실에 주어진 자원들을 모으고 회복하여 (비록 그것이 부분적이거나 그마저도 잘나에 그친다 할지라도) 더 나은 삶, 더 ‘살만한 삶’(livable life)을 만들기를 요청한다. 반면 로렌 벌랜트(Lauren Berlant)의 『잔혹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 2011)는 퀴어들이 읽기와 사유를 통해 저마다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즈윅식 낙관적 독법에 대한 적극적인 우려 표현이다. 무엇보다 벌랜트는 회복적 읽기를 낭만화하는 것이 도리어 자아를 소진시키는 잔혹한 낙관주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즈윅에 대한 벌랜트의 비판이 적극적인 ‘오인’(misrecognition)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세즈윅이 제안한 회복적 읽기의 의미를 보존하고자 한다. 구태여 세즈윅에 대한 반응으로서 벌랜트를 읽고 다시 세즈윅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벌랜트를 경유할 때 세즈윅의 취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동시에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가상의 세즈윅이 제안할 법한 반박을 벌랜트의 읽기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이다.

1) 하지만 세즈윅은 이러한 폭로와 탈신화화에 대한 믿음이 “전세계적 혁명, 젠더 역할의 파열, 혹은 그 다른 무엇을 위해서든 한 가지 부족한 점은 고통을 의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의식될지 않는다는 뜻이), 또 견딜 수 없게 (마치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훌륭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꼭 알맞다는 뜻이) 만들만큼 충분히 사람들의 (즉, 다른 사람들의) 억압, 가난, 현혹의 고통스런 효과를 악화되도록 하지 않은 것이라는 잔혹하고 경멸스런 가정”(its cruel and contemptuous assumption that the one thing lacking for global revolution, explosion of gender roles, or whatever, is people’s (that is, other people’s) having the painful effects of their oppression, poverty, or deludedness sufficiently exacerbated to make the pain conscious (as if otherwise it wouldn’t have been) and intolerable (as if intolerable situations were famous for generating excellent solutions; 22)을 전제한다고 비판한다.

2. 세즈윅의 “회복적 읽기”: 순응 혹은 저항이 아닌 중간지대의 행위자성 탐색

오늘날 성에 관한 언어와 담론을 바꿔놓은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에서부터 시작해보자. 푸코는 『성의 역사』(*History of Sexuality*) 1권에서 권력과 성의 관계를 억압과 해방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성 역시 권력으로 포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권력을 담론의 효과로서 매순간 새롭게 생산되고 배치되는 그물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푸코에게도 반복 속 변화에 관한 니체식 전망을 발견할 수 있다. 푸코의 담론적 권력(discursive power)이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같은 비평가가 우려하듯 “급진적 재의미화의 유토피아가 함의하는 것만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as weightless as the utopics of radical resignification might imply; Butler, *Bodies That Matter* 170) 채 매순간 새롭게 생성되는 것인가는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여전히 푸코의 개념은 계급 정치, 정체성 정치, 계몽주의 가치, 성적 해방의 기획 등의 담론들을 구조화 해온 억압과 해방의 이분법적 틀을 우회하여 권력을 사유할 방법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러나 세즈윅은 억압과 해방의 이분법에 대한 푸코의 비판적 분석이 사실상 “헤게모니와 전복이라는 훨씬 더 추상적으로 물화된 형식에서의 개념적 재부과”(its conceptual reimposition in the even more abstractly reified form of the hegemonic and the subversive; *Touching Feeling* 12)로 이어지는 현상들을 감지한다. 달리 말해, 그람시(Antonio Gramsci)-푸코식 사유를 경유하면서 오히려 헤게모니적인 것은 “현 상황(즉,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다른 이름”(another name for the status quo (i.e., everything that is); 12)으로, 전복적인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순전히 부정적 관계성”(a purely negative relation to that; 12)으로 경직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즈윅이 지적하듯이, 이는 주체가 현 상황과 맺는 관계성을 “반작용적이고 두 갈래로 갈라지게”(reactive and bifurcated; 13)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요컨대 주체에게 가능한 선택은 강제와 자발성이라는 이분법만을 극화할 현 상황의 순응 혹은 저항으로 좁혀진다. 그 결과 “유효한 창의성과 변화의 장소를 제공”(offer space for effectual creativity and change; 13)

하는 “행위자성의 중간지대”(the middle ranges of agency; 13)는 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세즈윅이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에서 현실의 억압과 폭력의 기제를 밝히는 비평적 관행, 즉 편집증적 읽기가 지식 생태계를 독식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페미니스트들과 퀴어 비평가들은 편집증적 의심을 통해 “물화된 젠더의 영향에 영향받지 않는 선형적 영역”(a priori immune to the influence of . . . gender reifications; 11)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파해왔지만, 그러한 선형적 영역의 부재에 대한 완고한 주장은 도리어 “[성 분화의 특정한 양식화된 폭력]이 절대 완전히는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이] 언제나 ‘있다고 추정’되거나, ‘자체적으로 상정’되고, 심지어는 필요한 곳에는 ‘부과되어야 한다’(a certain, stylized violence of sexual differentiation) must always be *presumed* or *self-assumed*—even, where necessary, *imposed*—simply on the ground that it can never be finally *ruled out*; 12)는 입장을 미리 정해 놓는다. 이처럼 편집증적 읽기가 “출발점으로 삼았던 바로 그 똑같은 가정들을 증명하는”(proving the very same assumptions with which it began; 14) 일에 그친다면, 이는 어떤 인식론적 놀라움도 어떤 수행적 실천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폭로함으로써 말소하고자 했던 문제를 역설적으로 물화하면서 다른 우연적 가능성을 미연에 부정하고 만다. “편집증 내에서 무엇보다 놀라움에 적대적이며, 동시에 예견적이고 소급적인, 시간성에 대한 유달리 뻗뻗한 관계를 인식”(To recognize in paranoia distinctively rigid relation to temporality, at once anticipatory and retroactive, averse above all to surprise; 24)하는 것이 세즈윅의 의식 속에서 “다른 가능성들의 윤곽들을 언뜻 보게 하는 일”(to glimpse the lineaments of other possibilities; 24)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즈윅이 『만지는 느낌』(*Touching Feeling*; 2003)에서 사물의 텍스처를 감각하고 느끼는 것은 편집증적 결정론을 포기하고 우리의 예상을 빗겨 나며 발생하는 ‘다름’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회복하기 위함이다.²⁾ 하지만 세즈윅은 멜

2) 세즈윅이야말로 한 때 편집증적 읽기를 통해 “동성애/이성에 정의의 만성적이고, 이젠 고질적인 위기에 의해 20세기 서양 문명의 사유와 삶의 주요한 접점들이 구조화,

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도식에 근거하여 회복적 읽기가 우울증적 위치(depressive position)에서만 가능한 성취라고 설명함으로써, 상실, 고통, 억압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회복적 읽기의 인식론이 편집증적 위치보다 덜 비판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 사이에 지향상의 차이를 남겨두되 인식론과 수행적 실천 상의 우열은 지운 채로, 세즈윅은 더욱 더 현상학적으로, 또 정동에 근거하여, 소위 “질적 차원에서”(qualitatively; “Klein” 628)에서 자아와 세계의 가능한 다양한 관계성을 천착한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회복적 동향들이 “단순히 미학적”(merely aesthetic; “Reading” 22)이고, 기껏해야 “단순히 개선주의적”(merely reformist; 22)이라고 쉽게 폄하되어 왔다면, 세즈윅은 도리어 이런 태도를 오만하고 관성에 젖은 비평적 습관이라 비판하면서 미학과 개량주의의 의미 자체를 다시 사유하기를 요청한다. 세즈윅 자신이 적극적으로 부연하고 있지는 않지만, 버틀러 말마따나 물질이 담론적 수단을 통해 만들어진 직조물이라면 텍스트를 탐구하고 읽는 일이 “단순히 미학적”일 리 없고, 또 완전한 ‘해방’이 인정받지 못할 꿈이라면 지금 있는 자원을 통해 모종의 변화를 끌어내는 일이 “단순히 개선주의적”일 수 없을 터이다. 더욱이 좋은 삶은 무엇인가란 질문의 역사에서 즐거움(pleasure)의 요소가 차지해왔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긍정적 정동의 추구는 소위 ‘나’의 감각과 감정을 계발하는 문제로 축소될 수 없고 ‘좋은 삶’(good life) 내지 ‘살만한 삶’(livable life)의 의미와 그 요건을 탐색하기 위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축자적 의미에서든 은유적 의미에서든 만지고 느끼는 과정에 마찰과 충돌, 침투와 오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듯이, 회복적 위치에서 세계와 대면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좋은 놀라움뿐만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자주 끔찍한 놀라움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쾌하기만 한 것도, 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아니 사실은 파열되어 있다”(many of the major modes of thought and knowledge in twentieth-century Western culture as a whole are structured—indeed, fractured, by a chronic, now endemic crisis of homo/heterosexuality definition; *Epistemology of the Closet* 1)란 도발적 주장과 함께 퀴어이론의 기념비적 저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렇기에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와 이후 비평적 작업들을 통해 회복적 읽기로 나아가는 세즈윅의 행보는 그 자체로 눈여겨 볼 만한 사건이기도 하다.

3. 벌랜트의 세즈웍 오인, 혹은 세즈웍신드롬 비판: 회복적 읽기에 내포된 신자유주의적 주체 비판

긍정적 정동을 따라 텍스트와 텍스처를 꼼꼼하게 읽으며 모종의 앎을 만들어내는 세즈웍의 독법은 이후 퀴어 이론에서 섹슈얼리티 논의의 궤적을 바꿔놓을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벌랜트가 지적하듯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누구든 특별한 해명 없이도 “숨겨지거나 억압된 진실 또는 해악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착의 다양성을 섹슈얼리티로, 살아낸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와 즐거움을 뒤범벅하는 미완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not on behalf of confirming its hidden or suppressed Truths or Harms but to elaborate its variety of attachments as sexuality, as lived life, and, most importantly, as an unfinished history that confounds the hurts and the pleasures; 123-24) 욕망의 여정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잔혹한 낙관주의』에서 벌랜트는 이러한 세즈웍의 회복적 읽기 혹은 그것이 소비/재생산되는 방식에 제동을 건다. 사유의 효력을 “극적이리만큼 강력하고 옳은 것”(dramatically powerful and right; 124)으로 과대 평가하는 경향, 풀어 말해 삶을 사유하고 읽어내는 방식이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단서를 달기 보다는 ‘보편화’하려는 경향에 벌랜트는 반대한다. 벌랜트가 보기에 이는 “실질적으로 의도적인, 자기반성적인 개인성”(virtually intentional, self-reflective personhood; 124)을 신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사유를 업으로 삼는 자들이 쉽게 빠지는 “직업적 함정”(an occupational hazard; 124)이다. 더욱이 회복적 읽기의 ‘효험’을 맹신하는 일은 회복적 읽기가 약속하는 낙관적 전망이 우리의 눈 앞에서 보란듯이 실패할 때 그 원인을 (오히려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 상태에 귀속시킴으로써, 개인을 끊임없이 물질적 심리적 위기로 내모는 사회적 조건을 문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실과 불화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개인을 병리화/비체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벌랜트는 회복적 읽기야말로 자아를 소진시키는 ‘잔혹한 낙관주의’의 일환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회복적 읽기의 낭만화가 개인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회복의 가능성에 헛되이 매달려 문제적 현실을 견디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랜트가 자신의 잔혹한 낙관주의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사용했던 어휘들을 통해 세즈윅의 회복적 읽기를 해설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단은 책의 「서문: 현재의 정동」(“Introduction: Affect in the Present”)과 「1장: 잔혹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에서 잔혹한 낙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벌랜트가 직접 쓴 문장들을 살펴보자: (1) “당신 스스로는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사람, 삶의 방식, 대상, 기획, 개념, 또는 장면의 흔적에서 감지하는 만족을 주는 무언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서 낙관주의를 기술한다면, 모든 애착은 낙관적이다”(All attachment is optimistic, if we describe optimism as the force that moves you out of yourself and into the world in order to bring closer the satisfying something that you cannot generate on your own but sense in the wake of a person, a way of life, an object, project, concept, or scene; 1-2). (2) “우리가 욕망의 대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거나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줄 전망의 다발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When we talk about an object of desire, we are really talking about a cluster of promises we want someone or something to make to us and make possible for us; 23). (3) “낙관적 애착의 정동 구조는, 이번엔, 이것에의 근접이 당신 또는 세상이 바로 옳은 방식으로 달라지게 도우리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판타지의 장면으로 돌아가는 지속적인 경향을 포함한다”(the affective structure of an optimistic attachment involves a sustaining inclination to return to the scene of fantasy that enables you to expect that this time, nearness to this thing will help you or a world to become different in just the right way; 2). (4) “[낙관적 관계들]은 당신의 애착을 이끌어낸 대상이 처음에 당신을 대상으로 이끌었던 목적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때만 잔혹해진다”(They become cruel only when the object that draws your attachment actively impedes the aim that brought you to it initially; 1). 벌랜트가 제4장 「똥똥하고 마른 두 여자」(“Two Girls, Fat and Thin”)에서 세즈윅의 비평적 작업을 “사물, 생각, 감흥에의 애착이란 지성의

힘의 유포하는 일”(to disseminate the intelligent force of an attachment to a thing, a thought, a sensation; 122)로 요약하고, 그 애착이 본원적으로 “오인의 시학에 의한 죄어오는 필연성의 거절”(refusal of cramped necessity by way of a poetics of misrecognition; 122)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 설명 이후 자신의 입장으로 포화된 어휘들을 통해서이다.

“옆의 환원불가능한 공간적 위치성”(the irreducibly spatial positionality of beside; *Touching Feeling* 8)을 상상하는 세즈윅의 관계성이 별랜트에 의해 ‘애착’이란 언어로 포획되고, 또 객관적 진리의 인식불가능을 함축하는 판타지(phantasy)란 개념이 의식적인 투사 작용의 결과라 할 ‘판타지’(fantasy)란 개념으로 대체될 때, 세즈윅의 이론은 요약과 바꿔말하기에 수반되기 것 이상의 치명적 의미 손실과 훼손을 겪는다. 사실 세즈윅이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와 「멜라니 클라인과 정동이 만드는 차이」(*Melanie Klein and Difference Affect Makes*; 2007)에서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제안한 멜라니 클라인의 위치 이론에 따르면 회복적 읽기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하다. 편집증적 위치에서 우울적 위치로 이행하는 일은 세즈윅에게 무엇보다 분열과 투사, 즉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분리할 예방적 필요 및 자신의 참을 수 없는 부분을 대상이라 여겨지는 자의 표면 혹은 내부로 공격적으로 방출하는 행위”(the prophylactic need to split good form bad and the aggressive expulsion of intolerable parts of oneself onto—or, ... into—the person who is taken as an object; 636)와 같은 원초적 방어기제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성을 “실질적으로 상호주관적이고, 심오하리만큼 양가적이고, 누구에게든 특별한 창의성의 장소”(virtually intersubjective, profoundly ambivalent, and a locus of anybody’s special inventiveness; 629)로 상상하기 위함이다. 세즈윅은 이 우울증적 위치에서 “저 우울증 너머로 생존하고, 회복하고, 이행해가기 위한 다양한 원천들”(a varied range of resources for surviving, repairing, and moving beyond that depression; 637)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자아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내적 대상, 즉 심리적 표상임을 시인하면서도 동시에 대상을 대상관계에 위치시키는 클라인의 도식은 자아의 관념, 표상, 지식, 충동, 억압 등으로 다

환원되지 않는 타자를 위한 존재론적 공간을 남겨 놓는다. 그렇지 않아도 『만지는 느낌』에서 텍스처를 감각/인지하기 위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How does it impinge on me; 13)만이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는지”(how, substantively, historically, materially, it came into being; 15) 질문하는 것은, 대상에게도 그것만의 ‘삶’과 ‘역사’가 있다는, 더욱이 자아가 연루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삶’과 ‘역사’가 있다는 인정을 전제한다. 그런데 벌랜트가 이 회복적 읽기를 “오인의 시학”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오인, 그러니까 “무언가에 어떤 자질들을 투사함으로써 그 자질들을 가졌단 이유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증오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 행위”(to project qualities onto something so that we can love, hate, and manipulate it for having those qualities; 122)란 의미에 기대어 설명할 때, 세즈윅의 대상은 벌랜트가 짜놓은 이론적 틀 안에서 자아중심적 세계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으로 축소되고, 세즈윅의 회복적 세계는 (사실 세즈윅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분열과 투사의 망상적 세계의 ‘밝은’ 버전으로 변색된다.

그렇다면 벌랜트의 세즈윅 읽기 자체가 모종의 ‘오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세즈윅에 대한 벌랜트의 불공정함을 따지는 일은 회복적 읽기의 어떤 힘을 다시 보존할 수 있게 할까? 혹은 이 일을 잠시 제쳐둔다고 한다면, 벌랜트의 ‘오인’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 벌랜트의 오인은 사실은 낙관적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벌랜트의 의심과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계기인 걸까? 벌랜트는 회복적 읽기에 치우친 비평적 에너지를 다시 편집증적 읽기로 회수하기를 요청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메리 갯츠킨(Mary Gaitskill)의 소설 『똥똥하고 마른 두 여자』(*Two Girls, Fat and Thin*)에 관하여 “[주인공]이 좋은 삶을 원한다면, 그 여자, 혹은 두 여자는 무얼 해야 할까?”(If she wants a good life, what’s a girl, or two girl, to do?; 129)란 질문을 천착하는 벌랜트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회복적 충동과 편집증적 충동의 관계를 부정성(negativity)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말할 방법이 없을까? 비평적 이론이 벌랜트의 말대로 “전통적으로 의심에 차”(traditionally . . . suspicious; 121)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생각하는 생각의 가치에 관해서도 너무도 탈진시키는 불안”(so much exhausting

anxiety about the value of even the “thinkiest” thought; 121)을 생산하기 쉽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낙관과 기대를 지속할 수 있을까? 세즈윅의 미덕을 긍정하다가도 곧잘 자신의 지향과 분명하게 선 곳은 벌랜트의 비평 속에서 세즈윅이 기대했던 강한 이론과 약한 이론의 맞물림, 또는 회복적 읽기와 편집증적 읽기의 교차관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제4장 「똥똥하고 마른 두 여자」에서 세즈윅의 회복적 읽기를 경유한 후 ‘낙관주의’가 실패하는 장면으로 옮겨가는 벌랜트의 논리적 전개가 “저 우울적 현실의 압박들이 마음의 작용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조증적 도피주의로, 또는 편집증/분열증적 위치의 폭력적 투사기제로 다시 회귀하도록 계속해서 떠민다”(the pressures of that founding, depressive realization can also continuously impel the psyche back toward depression, toward manic escapism, or toward the violently projectively defenses of the paranoid/schizoid position; “Klein” 637)는 세즈윅의 구절과 공명하는 듯한 개인적 인상에서 비롯되었다.³⁾ 회복적 위치에서(만) 가능할 법한 관계성을 함축하는 어휘를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탈각하는 벌랜트의 언어는, 회복적 위치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편집증적 위치로 쫓겨나게 되는 이들에게 비평적 동일시를 하고, 주로 이들을 편집증적 위치로 쫓아내는 현실의 압박에 관심을 기울이는 벌랜트의 입장을 그 자체로 체화하는 듯 하다. 누군가 편집증적 위치와 우울적 위치를 끊임없이 왕래할 때 세즈윅의 시선이 줄곧 회복적

3) 세즈윅은 “규범적 순서가 있는 단계들, 안정적인 구조들, 또는 진단적 인격 유형”(normatively ordered stages, stable structures, or diagnostic personality; “Reading” 7)이 아니라 “유연한 왕래운동”(the flexible to-and-from movement; “Reading” 8)을 암시하는 위치 이론을 통해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를 설명한다. 이는 읽기의 실천들을 “이론적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또 비평가의 안정적 성격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변화하고 이질적인 관계적 입장으로서”(not as theoretical ideologies (and certainly not as stable personality types of critics), but as changing and heterogeneous relational stances; 8) 이해하기 위함이다. 세즈윅은 편집증적 위치에서 우울증적 위치로의 이행이, 혹은 그 다음으로의 이행이 “우연히/가끔씩”(occasionally; “Klein” 640)만 가능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세즈윅은 이러한 이행을 교육을 통해 전보다는 “더 신뢰할 만한 기반에 근거해”(on a more reliable basis; 640) 수행해낼 수 있다고 믿었지는 몰라도 이를 개인의 의도와 실천을 통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위치, 혹은 회복적 위치로 향하는 움직임에 머문다면, 벌랜트는 그 반대 방향의 움직임에서 더 다급하고 본원적인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벌랜트는 회복적 읽기가 사유와 해석을 통한 자아의 팽창, 말하자면 “또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즘 혹은 숨막히는 의지”(another form of narcissism or smothering will; Berlant 124)의 발현에서 출발하거나 그곳으로 수렴될 위험을 늘상 수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와 텍스트처를 꼼꼼히 읽어 “공언되거나 부인된 욕망의 패턴들”(the avowed and disavowed patterns of his or her desire; 123)을 발견하고 이 반복들을 아직 관습이나 정체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임을 인정한다. 깊고 넘어가자면, 회복적 읽기의 미덕에 대한 벌랜트의 요약은 쿼어 이론이 반복과 차이에 관한 니체식 사유를 전유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역사에 기록된 반복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즉, 차이가 나는 것들 사이에 어떻게 모종의 동질성이 발견되는가)의 문제 의식이 역사가 기억하지 않는 반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즉, 그 모종의 동질성으로 환원되지 못한 차이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와 같은 후속 질문들을 배태하는 셈이다. 이때 세즈윅이 『뚱뚱한 예술, 마른 예술』(*Fat Art, Thin Art*), 『경향들』(*Tendencies*), 『사랑에 관한 대화』(*A Dialogue on Love*)에서 회복적 읽기를 통해 복원하는 삶의 모습은 벌랜트가 보기에 “내적인 반대서사의 우리 속에 삶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자아가 번성하는,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로 붐비는 세계”(a crowded world of loving family and friends in which she thrives partly by living in the fold of her internal counternarrative; 125)에 관한 것이다. 벌랜트가 표상하는 세즈윅의 회복된 세계가 보수적 의미에서의 애착, 내면성, (정상)가족, 사교성과 같은 가치로, 그러니까 벌랜트가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환상, “집단적으로 창안된 삶의 한 형식, 좋은 삶”(a collectively invested form of life, the good life; 11)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⁴⁾ 어쨌거나 벌랜트는 개인적 애착을 통해 번성 가능성을

4) 부연하자면, 세즈윅과 클라인의 수사학에서 회복된 대상이 이전에 존재하는 대상과 같거나 닮아 있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회복의 충동에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there is nothing intrinsically conservative about the impulse of reparation; “Klein” 637). 오히려 세즈윅에게 우울증적 위치는 “정상화하는 보

말하는 세즈윅의 이야기와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의 이야기는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과로 봄비는 듯 하지만 사실 “변성이 아니라 좌절, 경멸, 위협의 ‘전반적 환경’”(a general environment not of thriving but of disappointment, contempt, and threat; 125 필자 강조)에 관한 것이라고 밝힌다. 벌랜트는 회복적 읽기의 ‘신화’가 ‘영웅적’ 개인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양산될 때 비평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일상적 존재의 주저함과 퇴행성”(the hesitancy and recessiveness in ordinary being; 124)의 ‘장면’(scene)과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살펴본다.

4. 벌랜트의 트라우마 주체 읽기: 트라우마적 삶과 비개인성 ‘회복’

벌랜트가 『퐁퐁하고 마른 두 여자』의 트라우마를 겪은/겪는 두 인물 도로시 네버(Dorothy Never)와 저스틴 셰이드(Justine Shade)를 불러오는 까닭도, 트라우마야말로 “당신 자신의 운명과 의미에 대한 통제권을 가장 적게 갖는 순간에 당신을 명시하면서, 당신을 개인적인 것과 비개인적인 것을 묶는 매듭에서 위치시키[기]”(locates you at the knot that joins the personal and the impersonal, specifying you at the moment you have the least control over your own destiny and meaning; 126-27) 때문이다.⁵⁾ 벌랜트가 역설하

편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the space in which challenges to a normalizing universality can develop; 637)이다. 내 생각엔 세즈윅의 우울증적 위치와 벌랜트의 트라우마는 ‘정상성’이 야기하는 상실과 폭력에 몸소 고통을 느끼고 앓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그곳에서부터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벌랜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친연성을 갖고 있다.

- 5) 여기에서는 두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서술하는 문장을 하나씩만 옮겨 보려 한다. “[도로시가 열다섯일 때, 아버지가 그녀의 방에 비굴하게 들어와 부당한 세계에 대한 좌절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녀에게 이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사랑과 사과의 뒤범벅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도로시를 희롱하고 강간하기 시작하겠다고 입밖으로 말한다”(When she is fifteen, her father abjectly enters her room to tell her that his frustration with the unjust world causes him to act out on her, and in the jumble of love and apology he utters he begins to molest and to rape her; 131). “저스틴의 의사 아버지의 의사 친구는 반복적으로 또 고통스럽게 다섯 살 난 [저스틴]에게 수음한다”(A doctor friend of Justin’s doctor-father

기를, 개인적 애착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보다는 위협하고 좌절시키는 삶의 장면에서 폭력과 사랑을 모두 “비개인적인 것으로”(as impersonal; 125)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나에 관한 것이 아니야”(This isn't about me; 125)라고 단언하는 것은 절박한 생존 전략이다. 벨렌트가 직접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잔혹한 낙관주의』에서 비개인성은 서로 다르지만 교차하는 두 차원의 의미로 쓰인다. 첫째로, “욕망, 친밀함, 심지어는 한 사람의 개인성까지도 관습화하는 구조들과 관행들의 비개인성을 중심으로 세계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서 생각”(think of the world as organized around the impersonality of the structures and practices that conventionalize desire, intimacy, and even one's own personhood; 125)하자는 구절에서처럼 비개인성은 세계가 구성되는 원리 또는 개인성 자체가 작동하는 조건들을 (다시) 사유하는 인식론적 개념이다. 두번째로, 비개인성은 개인이 세계에 대해 취하는 일종의 “자세”(posture; 145)로서 흔히 친밀함(intimacy)이나 사교성(sociability)과 상반되는 애착의 양상을 가리킨다. 가령 『똥똥하고 마른 두 여자』에서 비개인성은 “일종의 형식주의적 전략”(a formalist strategy; 137)으로서 트라우마 주체 도로시와 저스틴이 특정한 음식, 특정한 신조, 특정한 페티시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 내지 형식 자체에 애착을 갖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벨렌트는 비개인성 내지 트라우마적 반복을 “무의식적 증상들의 발현”(manifestation of unconscious symptoms; 138)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식적인 의도적 행위 자성의 행위”(an act of conscious intentional agency; 138)도 아닌 중간지대의 무언가로 읽는다.⁶⁾ 비개인성 내지 트라우마적 반복은, 저스틴과 도로시가

repeatedly and painfully masturbates her at the age of five; 129).

- 6) 서론에서 밝히듯 벨렌트는 낙관의 대상을 나쁘고 억압적인 것들로, 낙관의 주체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불평등의 상징적 징후들로 보는/만드는 “증상적 읽기의 결론들”(the closures of symptomatic reading; 15)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성의 의미를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파악해서 “개인들을 온전히 포화하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하거나 다시 구조화하는 이해하는 일”(navigating and reconstruing the world that cannot saturate them; 15) 역시 경계한다. 이분법적 읽기나 변증법적 읽기는 “현재에 계속 살아가는 물질적 장면인 애착, 자기-지속, 삶의 재생산의 뒤범벅된 역학”(the messy dynamics of attachment, self-continuity, and the reproduction of life that are the material scenes of living on in the present; 15)을 잘 기술해

먹기를 통해 세계를 안으로 끌어 넣고 밖으로 뱉기를 반복하듯이, “흡수의 과정이자, 세상 속에 존재하는 방식, 즉 세상을 안으로 흡수하고, 세상에 입장하고, 세상을 피하는 방식”(a process of absorption and a way of being in the world, a way of bringing it in, entering it, and averting it; 133)이다.

비개인성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양산하는 ‘개인성’과 ‘좋은 삶’의 환상에 개입/간섭하기 위한 벌랜트의 자신의 “낙관적 개념”(optimistic concept; 159)이라 할 만하다. 벌랜트의 읽기는 비단 개인적 애착을 통해 변성할 수 없는 이들의 아직 말해지지 않은 삶을 조명한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비개인성(social impersonality; 129) 내지 비사회적 친밀한 관계들(dissociated intimacies; 129)을 그 자체로 애착의 한 방식, 행위자성의 한 방식으로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회복’적이다. 벌랜트가 비개인성을 징후적으로 읽지 않는다 함은, 트라우마적 반복을 모종의 행위자성도 개입되지 않은 반작용적이기만 한 증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만 아니다. 이는 “진정한 개인성이 이면에 놓여 있다거나, 혹은 안전한 공간, 혹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상정하지 않는다”(does not suggest that anyone’s true personhood lies beneath, or is awaiting a safe space, or repair; 143) 것, 즉 비개인성을 궁극적으로는 벗어나야 할 관계성의 임시적인 ‘단계’로 이론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욱이 수 년간 누구와도 좋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도로시와 저스틴이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모종의 공명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역사화하려는 충동”(a compulsion to historicize, to narrate their lives to each other; 128)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환이 “사적인 것의 ‘친밀한’ 교환”(an intimate exchange of something personal; 128 필자 강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트라우마 대화의 기묘한 사교성”(the strange sociability of contemporary trauma talk; 128)에 거리를 둔다. 오히려 작품은 두 인물이 서로에게 무언가 말해야만 할 것 같다는 압박에 대해 느끼는 “양가성과 당황스러움”(ambivalence and embarrassment; 128)에 주목하면서 친밀함의 증대를 필요 이상으로 재촉하는 인습의 이데올로기와 “거리의 우아함”(the elegance of distance; 128)이라 할 만한 것의 실질적

내지 못한다. “뒤범벅의 역학”을 기술하는 벌랜트의 작업은 “행위자성의 중간지대”(Sedgwick 13)를 발굴하고자 했던 세즈윅의 기획과 닮아 있다.

필요 간 간극을 극화한다. 상처, 고통, 앓, 이야기를 마치 재산처럼 “쌓아두고”(hoard; 128) 자신의 몸을 “괴이한 방패”(a grotesque shield; 128)로 만들어 바깥 세계의 침탈과 배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트라우마 주체의 “자기 봉쇄”(self-containment; 128) 이미지는, 친밀한 타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알기를 요구/재촉하지 않으면서도 타자의 존재를 안으로 들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버사니식 윤리와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관계성을 지향한다. 물론 “정상적 친밀함의 집어삼키는 세계”(the engulfing world of normal intimacy; 132)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잘라내기 행위”(cutting gesture; 132)는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희생 삼는 잔인한 자기방어이기도 하고, 그렇게 ‘성취’한 고독은 여전히 “동화되지 않음의 고통”(pain of unassimilability; 136)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어도 도로시와 저스틴이 서로에게 구사하는 비개인성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을 조건화하는”(condition them for taking on the risk of knowing everything they can; 143) 행위이다. 비개인성이 체화된 몸은 주인공들에게 “자유롭게, 격분해서, 당혹감을 느끼며 판단할 시간과 공간”(time and space to judge freely, angrily, and bemusedly; 143)을 제공하며, 이들이 늘상 고수하던 “끊임없이 경계하는”(hypervigilant; 130) 태세와 “감시하는 지성활동”(monitoring intelligence; 143)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벨랜트는 비개인성을 척박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모종의 행위자성이 있는 생존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적 삶의 자원으로 위치시키는 셈이다.

벨랜트는 이러한 삶의 전략이 인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개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고 이는 오로지 밀착해 읽기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벨랜트가 소위 “누가 시스템을 격파하고 누가 시스템의 압박에 굴복하는지에 대한 사회학적인 경험적 사례들”(sociologically empirical cases about who beats the system and who succumbs to its systemic stresses; 11)을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벨랜트에게 비개인성은 개인의 ‘또다른’ 삶의 양식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individuality; 125)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주의(-ism)와 기획⁷⁾에 흡수되기를 거부할

7) 벨랜트가 말하기를, “개인-저 자유주의적 환상의 기념비, 저 상품 페티시즘의 장소, 특정한 정신분석학적 욕망의 기획, 저 문화적 국가적 근대성의 기호—는 내게 반대

때 비로소 낙관적 개념일 수 있다. 벌랜트는 개인들이 저마다 수행하는 신체화된 적응의 형식들을 과감하게 일반화하여 “역사적이고 감정적 장면으로서 현재의 순환을 파악”(grasping the circulation of the present as a historical and affective sense; 20)한다. 벌랜트가 이 트라우마 주체를 경유하여 환기하는 현실의 모습은 흔히 트라우마 담론이 그러하듯 역사가 파열되는 ‘예외적’ 장면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기”(crisis ordinary; 9), 즉 “만연해 있는 현대의 사회적 위태로움”(a pervasive contemporary social precariousness; 7)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는 재앙의 경험과 그로 인한 예외적 쇼크와 기억 상실에 집중함으로써 은연중에 “주체가 일상적으로는 격렬함들을 정련되고 효과적으로 보존한다”(subjects ordinarily archive the intensities neatly and efficiently; 10)는 생각을 유포하는 기존 트라우마 이론에 대한 거부이다.⁸⁾ 사실 『똥똥하고 마른 두 여자』은 “성적 트라우마는 이후의 의식을 완전히 구조화하는 사건이라기 보다는, 이미 그 여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앎에 형체를 부여”(Sexual trauma shapes knowledge that the girls already have, rather than being the event that fully structures consequent consciousness; 155)할 뿐이라는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⁹⁾ 일상이 트라우마라는 벌랜트의 주

되는 형상, 비일관성에 의해 이미 가로막히고 비일관성을 견디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형식이다”(individuality—that monument of liberal fantasy, that site of commodity fetishism, that project of certain psychoanalytic desires, that sign of cultural and national modernity—is to me a contrary form, a form already interrupted by inconstancy that has a hard time bearing it; 123).

- 8) 벌랜트는 서론에서 일상성을 “사람들이 상상하는 좋은 삶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채 진행되는 삶들의 산란함을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들이 수렴하는 영역”(a zone of convergence of many histories, where people manage the incoherence of lives that proceed in the face of threats to the good life they imagine; 10)이라 주장함으로써, 현재(the present)와 일상과 트라우마에 관한 기존 개념들의 윤곽과 관계를 다시 상상하고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3-10).
- 9) 벌랜트는 도로시와 저스틴의 삶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시감, 그러니까 트라우마적 ‘사건’과 사건의 전과 후의 기괴한 연속성을 이성애규범적 좋은 삶의 양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번째, 그들의 가족은 트라우마를 겪었고 트라우마적 환경이다. 모든 가족들이 트라우마적이고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이성애규범적 좋은 삶의 양식에 그들이 애착하는 방식 때문에 이들 가족은 그들의 역사적 환경에서 범례가 되는 것으로 구성

장은 도로시와 저스틴이 “가족적 사랑의 경제 안에서”(in the economy of familial love; 129) 트라우마를 경험하듯, 우리가 매일 기대어 사는 규범과 ‘환상’이 트라우마의 원인이자 조건이라는 다소 과격한 비판을 내포하는 셈이다.

5. 나가며: 벌랜트의 이론이 함축하는 새로운 시간성/역사성

벌랜트의 『잔혹한 낙관주의』는 “말하자면, 커플들, 가족들, 정치적 시스템들, 제도들, 시장들, 그리고 근무에서의 지속되는 상호성에 관한 관습적인 좋은 삶의 환상들(conventional good-life fantasies—say, of enduring reciprocity in couples, families, political systems, institutions, markets, and at work; 2)이 헤지고 붕괴되는 일상의 아카이브이기도 하다. 필자는 (각각의 이야기들의 다양성과 복잡함은 뒤로한 채) 벌랜트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왜 사람들은 [관습적인 삶의 환상]의 불안정성, 취약함, 값비싼 비용의 증거가 많을 때에도 (...) 관습적으로 좋은 삶의 환상에 여전히 애착하는가?”(Why do people stay attached to conventional good-life fantasies . . . when the evidence of their instability, fragility, and dear cost abounds? 2)란 질문과 그 대답을 전유하여 (이미 벌랜트가 조심스레 개진하는) 반복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말하고자 한다. 물론 벌랜트는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순간에도 관습적인 삶의 형식과 관행 밖에서 다르게 살고 사유한다는 것이 개인이 뜻하는 만큼 쉽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형식 없음에 대한

된다. 그들의 삶의 구조적인 “생각되지 않았으되 알고 있는 바”는, 가족의 섹슈얼리티, 그것의 혼합된 친밀한 재정적 경제, 환상과 실천 간의 비뚤어진 관계 속에서 삶을 어떻게 가장 잘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미 어떤 것을 양성하는 데에도 척박한 환경이란 것이다.”(First, their families are traumatized and traumatic environments. I do not mean that all families are traumatic and traumatized, but these particular families are constructed as exemplary in their historical for the ways they attached to a heteronormative good-life modality that was not good for anyone in it. The structuring “unthought known” of their lives is that the sexuality of the family, its amalgamated intimate and financial economy, its decision about how best to reproduce life in a perverse relation of fantasy to practice, is already a terrible context for the cultivation of anything; 155).

불안”(the anxiety of formlessness; 125)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존재하는 형식과 관행에 쉽게 귀속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애착은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뒤쫓아가는 지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이, 너!”가 아니라 “기다려 줘!”이다.) 애착에 대한 이 더디고 꾸물거리는 관계는 우리가 아찔하고 형체없게 느끼게 하도록 위협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의미화하기 전에 소진되거나 죽게 되리라는 전망 앞에서 느낄 패닉을 누그러뜨려 주기 위해 가는 길에 규범적 관습과 우리 자신의 창의적 반복들이 있을 때를 빼면 말이다. (...) 정상 세계에 속한다는 것은 오로지 특정 형식의 가시성의 양식들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해준다고 오인하는 것이다.

Attachments are made not by will, after all, but by an intelligence after which we are always running. (It's not just “Hey, you!” but “Wait up!”) This lagging and sagging relation to attachment threatens to make us feel vertiginous and formless, except that normative conventions and our own creative repetitions are there along the way to help quell the panic we might feel at the prospect of becoming exhausted or dead before we can make sense of ourselves. . . . To belong to the normal world is to misrecognize only certain modes of intelligibility as expressing one's true self. (125)

푸코나 버틀러식 사유에서 규범 내지 관습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강제되는’(compelled) 것인 반면에, 벌랜트에게 관습적 환상은 자기이해의 끊임없는 지연 속에서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찾게 되는 무엇이다. 이는 우리의 심리 기제 자체가 보수성을 띠는 말이기도 하기에, 어쩌면 버틀러의 도식에서보다 벌랜트의 관습이 훨씬 더 “어리석[더라도] 불가피한”(stupid and necessary; 127) 것으로 물화될 여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벌랜트의 도식에서 규범에 귀속되고자 하는 열망이 사실상 내용과는 무관하게 어떤 형식에 속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환상이 우리의 욕망에 기원하되 우리의 욕망과 간극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벌랜트의 도식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더 잘 충족해줄 새로운 형식에의 갈망과 그 이행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주장 또한 가능해진다. 더욱이 푸코나 버틀러식 사유에서

규범과 관습이 실질적이든 상징적인 차원에서든 법이라는 원칙 혹은 기준을 뜻하는 반면에, 벨랜트에게 관습이란 말이 개별 사례의 동향을 구속하는 중심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이다’(convene)란 어원적 의미대로 반복되는 사례들의 모임을 뜻한다는 점 역시 기억할 만 하다. 이는 모임의 우발성 내지 우연성이 새로운 형식의 발생과 새로운 형식의 반복을 가능케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들이 때때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건들”(world-shifting events; 6)로 조직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벨랜트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맴돌던 사건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현상에 모종의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반복들이 그걸 다시 불러낼때 까지 어딘가에 괄호쳐지고 저장되고 만다”(end up being bracketed and stored somewhere until repetitions call them back; 6)라고 서술하는 벨랜트의 언어에는, 여전히 반복과 축적을 통해서만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죽은 과거의 사건까지도 ‘소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아 있다. 벨랜트의 이론에는 우리가 이미 매일 같이 모종의 변화를 함축하는 사건들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이미 깔려 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감각할 “감각중추”(sensorium; 3)가 늘 “뒤늦게서야 발달되고, 더욱이 그것을 “이야기할 장르들”(genres of storytelling; 6)은 “혼돈 속에”(in chaos; 6) 있다 할 만큼 불안정하다. 그렇기에 벨랜트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각과 감각중추를 계발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 그럼으로써 삶의 형식과 자원을 만드는 일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지향점의 차원에서든 방법론적 차원에서든 「편집증적 읽기와 회복적 읽기」 이후 세즈윅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읽기가 역사의 사슬을 끊어 내어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는 세즈윅과 다르게, 개인의 읽기가 집단적 읽기로 반복되어 누군가의 삶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읽기와 사유가 무용하게 사라져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할 뿐이다.

참고문헌

Berlant, Lauren. *Cruel Optimism*. Durham, London: Duke UP, 2011.

- Bersani, Leo and Adam Phillips. *Intimacies*. Chicago: U of Chicago P, 2008.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7.
- _____. *Bodies that Matter*.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1.
- Foucault, Michael.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 Nietzsche, Friedrich. *On the Genealogy of Moral*.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1969.
- Sedgwick, Eve. *The Epistemology of the Closet*. Berkeley,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90.
- _____. "Melanie Klein and the Difference Affect Makes." *South Atlantic Quarterly* 106. 3 (2007): 625-642.
- _____.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Novel Gazing*. Durham, London: Duke UP, 1997. 1-44.
- _____. *Touching Feeling*. Durham, London: Duke UP, 2003.
- Williams, Raymond.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P, 1977.

ABSTRACT

What If Sedgwick Read Berlant?:
Slow Reading and The Possibility of Repetition,
Form, and Scenario

Heewon Kim

To some extent, critical theories are responses to what dominates or is taken for granted in history. They ask: If the norms, conventions, and languages constituting our lives are oppressive, are we still capable of imagining a better life, a better future? Using Eve Sedgwick's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1997) and Laurent Berlant's *Cruel Optimism* (2011) as two different (but respectively significant) pillars in the history of critical theory, this paper attempts to map the critical stances and concomitant affects regarding prospects for change.

In this age, suspicion, skepticism, and discontent are the symbols of intelligence. Indeed, many critics have engaged and succeeded in exposing the oppressive nature of reality and the obscure mechanism of power. It is Sedgwick who points out the state of a critical impasse in which the "hermeneutics of suspicion" has been habitualized and simply confirms what is already known rather than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reality. Sedgwick insists on the need to direct critical energy to elaborating on the variety of desires as a "lived life," and more importantly, as an "unfinished history" that has survived the oppressive reality. Since she encourages critics to gather and recover resources in the given world to imagine and live a more livable life, Sedgwickian reparative thought has not only been influential but also prevailed in the

theoretical discourse of desire and sexuality.

In *Cruel Optimism*, Berlant interferes with the way this reparative reading is consumed and reproduced. According to Berlant, critics' tendency to believe individuals can change their own life as they think is not only an occupational hazard but also an aspect of neoliberalism, which overestimates the intentional, self-reflective personhood. She pays attention to traumatized subjects (instead of the more or less "heroic" ones) to represent the way of living and feeling in a precarious world in which the ordinary becomes crisis itself. In chapter four, she focuses on two female characters in Mary Gaitskill's novel, *Two Girls, Fat and Thin*, who are attached to repeated actions such as eating, thinking, and sex, rather than a certain object. Through this observation, Berlant demonstrates how their formalist strategies and impersonality function as a kind of agency and accordingly, why they should remain essential resources of life.

This paper intends to reveal that Berlant's concern about reparative thought is based on intentional misrecognition and to preserve, as well as discover, the reparative impulse in her own theory. Reading her work, it becomes clear that Berlant's theoretical thought comes from a thirst for new forms to satisfy and explain our desire all the better. While Sedgwick explores the vitality or dignity of an individual who is not destroyed by (and thus seems free from) the tyranny of history, Berlant reflects on impersonality and form to remove the traces of humanism in reparative reading, and thus sheds light on an individual who is by no means free. Furthermore, Berlant's axiom that knowledge is traumatic suggests the inevitable presence of a gap between the time of experiencing and the time of understanding. Berlant invites us to think of this belatedness as a fundamental condition of thought and historicization.

Key Words critical theory, Eve Sedgwick, ““Paranoid Reading and Reparative Reading”, Lauren Berlant, *Cruel Optimism*, history, change, subjectivity, individuality, impersonality, form, repetition, trauma, belatedness

